

칼 빼든 이명박 후보, 당 혁신 순항할까?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 부칠듯

당 장악후 "전면적 혁신" 일성... 총선 물갈이엔 '구주류' 거센 반발 예상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당선 일성으로 전면적인 당혁신을 중시하듯 제시, 스스로 정치력 검증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기간 4년과 퇴임 후 대선캠프 기간을 포함해 5년 넘게 당무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외곽에서 지켜본 객관적 관점에서 한나라당의 문제점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후보가 '전매특허'적인 예의 특성과 추진력으로 당혁신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오랜 '관성'에 젖어있던 당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돼 앞으로 전개될 이명박 혁신구상의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 구상이 당의 '보수 색깔' 빼기와 대대적인 조직·인적 쇄신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경우 당내의 주류를 형성해 왔던 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열린다는 점에서 인적쇄신 문제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이 후보측은 "구체적인 구상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일단 칼을 빼든 이상 당의 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07 대선 한나라당의 과제' 토론회에서 맹형규, 김학원, 권영세 의원 등 '당이 중심되는 모임' 의원들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에 밀려 칼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이 후보 경선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던 박형준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는 일관되게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젊은 세력에 매력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혁 전망과 관련, 측근들은 극우 보수의 색깔을 약간 빼 '중도·실용' 이미지를 대폭 보강하

는 동시에 '일하는 정당',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권, 이념적으로는 수구·보수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다소 경직돼 있는 여의도식 당 운영 방식을 탈피해 기존의 정당 체제에다 일 중심의 '기업형 운영 방식'을 접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합뉴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당의 주류로 분류되던 인사들이나 박 전 대표측이 아무래도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아직 경선 패배 이후 "깨끗한 경선 승복"이라는 지침 아래 박 전 대표측 인사들이 일제히 '침묵', '자제' 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별써 "한나라당을 그동안 지지해 온 세력을 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보수 정당이지, 진보정당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영남 세력들이 당을 죽기살기로 지지해서 왔는데 이제 와서 보수·영남을 버리고 무슨 근거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는 불만도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측에 섰던 한 의원은 "빨선의 개혁은 부적절하다"면서 "한나라당이 지탱해 온 두 기둥인 보수와 영남을 버리고 어떻게 집권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기존 주류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 후보의 구상이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둔 대대적인 인적 청산·쇄신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이다. /연합뉴스

李, 후보비서실 곧 발족... 본선용 조직정비

황우여 사무총장 사표... "당직인선 천천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이른바 금주중 후보비서실을 발족시키는 등 조직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이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22일 "현행 당내·당규에 따라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후보비서실과 특보단, 대선기획단, 유세지원단 등 4개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이번 주 내에 후보비서실을 발족시킨 뒤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나머지 기구들을 구

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후보비서실은 비서실장과 약간 명의 부실장, 보좌역, 사무처 당직자 등으로 구성되며 비서실장의 경우 3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지만 현역이 아닌 명망있는 원외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후보비서실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당에 이미 후보의 사무실이나 집기는 마련돼 있으며, 일단 후보비서실이 구성되고 나면 후보에게 당무나 재정 보고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황 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인선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3선 의원이 맡아 온 사무총장은 대선을 앞두고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요직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의 '복심'을 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당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경선캠프에서 일했던 한 의원은 "사무처가 '뉘체'(친박근혜) 성향 인사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 경선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게 사실"이라면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일부 인사요인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사무총장 인선을 비롯한 당 직책편은 선대위 구성에 맞춰 천천히 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당직개편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남북정상회담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靑 "국정운영 가로막자는 것"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선후보를 선출하자마자 오는 10월 2~4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차기정권으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 및 의제 문제가 대선 정쟁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대선에 임박해 개최할 경우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며 합의사항을 실제로 집행할 차기정권에 남북정상회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의 연기요구는 상식 이하의 발상

이라고 비판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중대사안 만큼 집권이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2일 일본 후지TV 프로듀서와 만나 "남북정상회담이 연말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을 해서도 안되고 그럴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섭 대표는 이날 YTN '클로즈업' 프로그램에 출연, "(정상회담을) 굳이 하겠다면 대선후 대통령 당선자

와 조율해서 퇴임전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운영을 가로막자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이라며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정신만으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미래를 바라보고 큰 안목에서 전체 공동체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공익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을 갖고 평화로 나가는 길을 신중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교수들이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전남대 민병로, 신창선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대학별 서명자 수는 전남대 26명, 순천대 17명, 광주대 15명 등 18개 대학 165명이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교수 160여명 손학규 지지 선언

광주·전남지역 교수 160여명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이 지역 대학 교수 165명은 22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하고 "민주개혁 출신 및 학자로서 현실 참여와 자치단체 경영 등을 통해 확실하게 검증된 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용철(전남대), 노상채(조선대), 민병로(전남대), 신창선(전남대), 신일섭(호남대), 은우근(광주대) 교수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지지 서명자 수는 전남대 26명, 조선대 13명,

호남대 14명 등 18개 대학 165명이다.

이들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으로 ▲창조적 국정운영을 위한 실사구시적 자질과 능력 ▲대립과 분열을 통합과 상생으로 바꿀 리더십 ▲서민과 중산층 중시 민생 마인드 ▲21세기형 새 정치를 위한 역량 ▲평화체제 전환기의 통일에 대한 비전과 역량 등을 제시한 뒤 "우리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는 손 후보가 유일했다"면서 "손 후보가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고, 보수세력의 압박과 견제 속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을 곳곳이 지켜온 소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손 후보를 둘러싼 (범여권 내의) 정통성 논란과 관련, "편 가르기론을 통한 대립과 분열은 구 시대적 정치형태"라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무능과 실정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비전이 있는 유능한 정치세력을 통해 국가적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역 국회의원 중 추가로 정장선, 김영주, 이원영 의원이 손 전 지사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손 후보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14명으로 늘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에프키 더이상 없습니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1032-763-4000

삼아싱농구

- 스프링클러
- 수집농기계
- 고성능트랙터
- 비료살포기
- 에프키
- 소형농기계
- 양수기
- 소형트랙터
- 소형트랙터 로프

당인 카페검색 마늘주사 후루민 을

http://cafe.daum.net/furumin

062-383-6883